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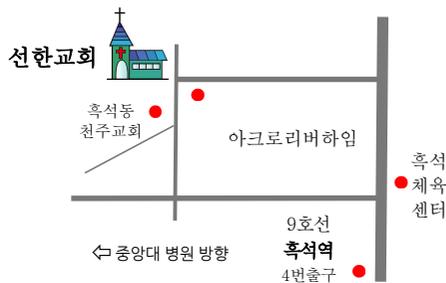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유 아 부	오전 10:00 남전도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0:00 바 울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역자	담임목사 임춘배 교육목사 김진만 교육전도사 윤영 협력전도사 오호남	국내선교사 협력교회	오인숙, 한배선, 강성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퇴장로	고상돈, 김대희 박희태, 유신웅	해외협력선교사	이금춘, 김인실 조나단, 강야엘
장로	윤호중 (집사장) 조윤익, 박영근 조계승, 이태수 편도선	관리장로 500/50 교회	손석규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사이용(동작 01, 10, 21)

표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10:12) Break up your fallow ground		
실천사항	예배회복	말씀/기도회복	선교사의 삶 회복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평강의 주께서 찬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3:16)



담임목사 임춘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임춘배 담임목사
	3부 오후 1:00 (청년예배)	김진만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29장 (통일찬송가 29장)	
교 독 문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찬 양 과 경 배	453장 (통일찬송가 506장)	
기 도	이 태 수 장로	박 수 민 청년
말 씬 봉 독	디모데전서 1장1~11절	마태복음 5장 7절
설 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임춘배 목사)	공홀히 여기는 자 (김진만 목사)
헌 금	헌금송 : 최영석 집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정예영 회장
파 송 의 노 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축 도	임춘배 목사	주기도문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찬 양	JOY AND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4장 1~11절
기 도	김명옥 권사
말 씬	두 번째 환상 : 천상예배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시20:1-9)

교회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예 배 안 내
 1. 모든 예배와 부서별 모임을 코로나 이전처럼 드립니다.
 2.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3. 오늘부터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합니다.
부서별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4.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추고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2.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3.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어둠들을 잘 극복하고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 선한교회의 각 부서들의 부흥과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를 위해 예비된 분들이 모두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부 서 별 행 사 루디아/여호수아: 8월 28일(주)

한주간의 기도제목	<p>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p>
----------------------	---

찬송 : '어느 민족 누구게나' 586장(통 521장)

본문 : 시편 33편 12~22절

말씀 : 톨스토이는 “전쟁은 인간이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극적인 전쟁이 63년 전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 전쟁과 더불어 가장 처참한 전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산가족만 약 1000만명 발생해 지금도 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렵게 합의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북한 측의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변심으로 무기한 연기됐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적 통일이 이뤄지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고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책임이며 무릎으로 하는 애국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치는 일은 참 어렵고, 물질로 애국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기도로 애국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애국입니다. 3·1만세운동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유관순은 “내게는 기도가 애국이고, 찬송이 애국이며, 독립만세가 애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의 의인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패역에 대해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하시면서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긍휼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없어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찾아오면 망하지 않게 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은 정치인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배운 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교육열은 세계 제일이고 경제적으로도 대국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것은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고,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고 강합니다. 여러분이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간디라고 불리는 조만식 장로님은 “이 나라에 인물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서로가 인물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한 사람 바르게 살기로 힘쓰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제 목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딤후1:1-11)

서 론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서론

- (1) 저자 : 사도바울(1절)
- (2) 수신자 : 디모데(2절)
- (3) 기록연대 : 62년~65년 (1차 로마투옥과 2차 투옥 사이)
- (4) 기록목적 :
 - 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의 목회를 돕기 위함
 - ②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함
 - ③ 기타 신앙 교훈

2.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의 차이

본 론

- (1) 거짓 교훈 :
 - ① 신화와 끝없는 족보(4절)와 율법의 행위(6,7절)에 몰두함
 - ② 변론(4절)과 헛된 말에 빠짐 (6절)
- (2) 바른 교훈 :
 - ① 믿음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4절)
 - ②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옴(5절)
 - ③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11절)

3. 교훈

- (1) 에베소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 (2) 한국교회에 만연한 바르지 못한 교훈은 무엇인가?
- (3)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결 론 바른 교훈을 지키고 그 교훈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이태수 장로	편도선 장로
오후예배 기도	김명옥 권사	김미숙 권사

매일 Q.T.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날짜 : 8월 22일
찬양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본문	창세기 12:1~9		
말씀요약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분이 보여 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러 제단을 쌓습니다.		
목상질문 1	아브람을 부르심 12:1:4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가 먼저 '떠날' 곳은 어디인가요?		
목상질문 2	땅과 자손을 약속하심 12:5~9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7절)라는 말씀에 아브람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내가 믿음으로 취할 하나님 약속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창세기 12장 1~1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여정을 갈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라'는 말은 움직임을 전제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러나 모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한 여정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모험을 떠난 순종의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앞길이 안 보여도, 저를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안전지대로 여겼던 곳과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이들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약속의 말씀을 삶의 길잡이로 굳게 붙들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양보하고 배려하는 믿음”	
찬양과 기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새 546)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로를 바꾸어 주님의 종이 되는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이를 반대했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와 홀로 생활하며 신학교 입학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가 집을 나올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창 28:15)라는 말씀을 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작은 방 한 칸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지도 없고, 가족도 없었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합격하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학교를 졸업할 때 예배당 한구석에서 기도하던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 중에 가만히 지난 삶을 돌아보니 어느새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아 가족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두 채워 주고 계셨습니다. 그는 처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견고한 신앙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조금씩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말씀 나누기	창세기 13:1~18		
목상포인트	의롭고 관대한 제안을 한 아브람과 탐욕적이고 근시안적인 선택을 한 롯이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일지라도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양보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의 앞길에 큰 은총을 예비하십니다. 복된 미래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매사에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많은 가축 탕에 목자들이 땅을 두고 서로 다투자, 아브람은 롯에게 어떤 제안을 했나요?(8~9절)		
적용하기	형제 혹은 이웃 간의 화평한 관계를 위해 내 소유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보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택하신 백성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택의 순간에 저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축복에 화답하는 신앙,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날짜 : 8월 26일
찬양	찬송가 450장 내 평생소원 이것뿐		
본문	창세기 14:17~24		
말씀요약	승전한 아브람이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람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아브람은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동행자들의 분깃만 제하고, 소돔 왕의 물품을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합니다.		
목상질문 1	아브람의 십일조 14:17~20 아브람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바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 삶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요?		
목상질문 2	아브람의 신앙 고백 14:21~24 아브람이 전리품을 가지라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 따르는 신앙인임을 명확히 고백하나요?		
한절묵상	창세기 14장 23절 탐욕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탐욕은 작은 틈으로 들어와 한 영혼의 삶 전체를 죄로 물들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은 작고 미천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은 작은 것에도 높은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무시해도 될 작은 죄, 사소한 죄란 없습니다. 탐욕으로 드러나는 죄의 본성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히12:4)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가 경험한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결과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제 공로에 대한 보상 심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소서. 천지의 주재시요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감사함으로 즐거이 십일조를 드리게 하소서.		

매일 Q.T.		불성실한 아브람, 신실하신 하나님	날짜 : 8월 23일
찬양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본문	창세기 12:10~20		
말씀요약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람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바로에게 아내 사래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는 사래로 인해 아브람을 후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래를 아내로 삼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람은 아내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목상질문 1	아브람의 꾀 12:10~15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이 사래를 '누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는 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나요?		
목상질문 2	하나님의 일하심 12:16~20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자, 바로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내게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한절묵상	창세기 12장 13,20절 아브람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고 사래가 바로의 아내 되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아내를 되찾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의 신앙 성숙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은 한 단계씩 성숙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두려워하며 자기 목숨을 걱정하는 아브람의 모습이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을 후대하신 하나님! 그 기이한 은혜를 제게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신앙인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 Q.T.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 시선	날짜 : 8월 24일
찬양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본문	창세기 13:1~18		
말씀요약	아브람이 아내와 소유와 롯과 함께 벤크에 이릅니다. 아브람과 롯이 거한 벤크와 아이 사이의 땅이 넉넉하지 않아서 양쪽 목자가 다퉈니다. 이에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먼저 택해 소돔까지 이릅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묵상질문 1	아브람과 롯 13:1~9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타인을 위해 양보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묵상질문 2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 약속 13:10~18 소돔 땅과 가나안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각각 어떤 곳이었나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나요?		
한절묵상	창세기 13장 12~13절 사람의 발걸음은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 요단 동쪽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10절)라는 말씀처럼 그 지역이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 사람들을 ‘큰 죄인’으로 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 언젠가 최악의 현장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항상 점검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시선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어그러진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게 성령의 생각을 불러넣어 주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제게 가장 좋은 환경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게 주소서.		

매일 Q.T.		아브람의 용기와 하나님의 구원	날짜 : 8월 25일
찬양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 날까지		
본문	창세기 14:1~16		
말씀요약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의 네 왕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다섯 왕과 싸워 이깁니다. 이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갈 때, 소돔에 거주하는 롯도 함께 사로잡힙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롯과 가족과 재물을 찾아옵니다.		
묵상질문 1	롯이 사로잡힘 14:1~12 서편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하자 롯은 어떻게 되었나요? 풍요로움 때문에 선택한 곳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묵상질문 2	롯을 구한 아브람 14:13~16 아브람과 318명의 사병이 되찾아 온 것은 무엇인가요? 비록 내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거둔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창세기 14장 16절 하나님의 군사는 싸우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 군사는 빼앗고 정복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는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 싸웁니다. 아브람과 사병 318명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 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는 회복과 구원을 위한 싸움입니다. ‘찾아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슈브’는 원래대로 회복되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마음과 눈이 가는 대로 선택했다가 위험에 빠진 롯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소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힘이 부칠 때 제게 지원군을 보내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상황을 보거나 들을 때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